제7강 소피스트들은 누구인가 Ⅱ

(1교시)

Ⅲ. 세 번째 규정

이제 세 번째 규정은 다시 소피스트술을 포획술에 포함시키고서 논의를 시작한다.

1. 낚시술의 규정에서 경합술에는 공개적인 것과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경합술이 공개경쟁에 관련된 것과 싸움에 관련된 것으로 분할된다. 소피스트술을 싸움에 관련되는 것으로 분류된다.(이것은 소피스트들의 '교육'이 공개 교육이나 공적 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며, 이 사교육의 맥락은 앞에서 말했듯이 논쟁에 이기는 것, 변론에서 이기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리라)

2. 싸움에는 신체적 싸움과 말싸움이 있다. 소피스트들의 싸움은 당연히 말싸움에 속한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신체의 반대항으로 '영혼'이 아니라 '이성'을 들고 있다)

3. 말싸움에는 정의/부정의의 문제와 관련해 긴 변론(辯論)을 통해서 서로 대립하는 법적 변론과 물음과 답변을 잘게 나누어 논쟁하는 의견대립이 있다. 소피스트술은 공적인 변론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대립에 관련된 기예, 즉 타인의 의견을 반박(反駁)하는 기예이다.

4. 의견대립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 특히 정의/부정의 – 보다 넓게는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 – 와 관련해 벌어지는 논쟁에 관련된 것을 논쟁술이라 한다. 소피스트들은 덕=아레테를 가르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고, 덕=아레테는 올바름/정의와 올바르지 못함/부정의와 직결되므로, 소피스트술은 논쟁술에 속한다.

5. 논쟁술에는 돈을 낭비하는 것과 버는 것이 있다. 낭비하는 경우는 유치한, 그리고 돈도 안 되는 수다를 떠느라 일을 게을리 해 돈을 탕진하는 경우이고, 돈을 버는 경우는 바로 소피스트술의 경우이다.

Ⅳ. 네 번째 마지막 분할

소피스트들은 변화무쌍한 존재들이다. 즉 실체를 잡기 힘든 존재들이다. 이것은 소피스트들의 시뮬라크르적 성격을 함축한다. 때문에 플라톤은 이 변화무쌍한 존재들이 남기고 다니는 흔적을 찾기를 제안한다. 이 대목은 플라톤의 생각을 여러 측면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지금까지 플라톤은 기예를 제작술과 획득술로 양분하고서 논의를 전개시켰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분리술이라는 또 다른 기예를 놓고서 논의를 전개한다.

1. 집안일을 할 때 체질하는 것, 거르는 것, 까부르는 것, 또는 빗다, 잣다, 짜다 같은 여러

www.artnstudy.com

기예들이 있다. 이것들을 '분리술'이라 부를 수 있다. 분리술에는 닮은 것을 닮은 것에서 분리해내는 경우도 있고, 더 나은 것에서 더 못한 것을 분리해내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를 '정화술(katharmos)'이라 부른다. 소피스트들은 지혜를 가르쳐주겠다고, 달리 말해 무지를 분리해내 주겠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기예는 일단 정화술에 속한다.

2. 정화에는 신체의 정화와 영혼의 정화가 있다. 신체의 정화에는 매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영혼의 정화가 문제가 된다. 소피스트술은 영혼의 정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영혼의 정화는 결국 영혼의 악덕함을 몰아내는 기예이다.

3. 영혼의 악덕함에는 불화와 질병에서 유래하는 추함과 분별력이 없음에서 유래하는 무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체육, 의술, 징벌 등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교육이 필요하다. 소피스트들은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기예는 교육술(교수법)에 속한다.

4. 교수법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무지를 깨우치는 기예와 어리석음(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을 깨우치는 기예가 있다. 전자는 기술교육이고, 후자는 교양교육이다. 소피스트들은 후자에 속한다.

(2교시)

5. 교양교육에는 훈계술과 철학적 비판이 있다. 소피스트술은 얼핏 철학적 비판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늑대와 개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소피스트들의 기예는 진정한 철학적 비판이 아니다. 즉 소피스트술은 교양교육의 하위 부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철학적 비판은 아닌 무엇이다. 그러나 어쨌든 소피스트술은 교양교육의 하위 부류에 속하며, 적어도 '고상한 소피스트술'은 철학적 비판과 유사하다.

이제 소피스트술을 훈계술이나 철학적 비판 어느 한 곳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플라톤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소피스트술은 분명 훈계와는 성격이 다르며, 그렇다면 철학적 비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소피스트들은 철학자들이 되어버린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교양교육을 훈계술과 소피스트술과 철학적 비판으로 삼분해야 할까?(그림 A) 그러나 플라톤은 이 삼분법을 취하지 않는다. 이 쉬운 길을 플라톤은 왜 가지 않았을까? 아니라면 분할을 더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철학적 비판에 진정한 철학적 비판과 그릇된 철학적 비판 – 철학"적"이긴 하지만 결코 좋은 철학은 아닌 그런 행위 – 로 다시 세분하면 되지 않을까?(그림 B) 그러나 플라톤은 이 길도 가지 않는다. 사실 이전에 나온 개념인 'eristike'가 그릇된 논박술의 의미를 띠고 있고, 따라서 자연히 'elenchos'와 대비되기에(실제 다른 대목들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사용된다) 용어들도 이미 마련되었건만, 왜 이 대목에서 'eristike '와 'elenchos'를 대비시키지 않는가? 플라톤은 여기에서 분할을 멈추고서, 소피스트들을 마지못해서 철학적 비판으로 분류하고 있다.

www.artnstudy.com

왜일까? 수수께끼 같은 대목이다.

www.artnstudy.com